

# 자기 소개서

## 성격과 강점

[목표를 향해서]

저는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목표로 매일 새벽 공부를 이어갔고, 그 결과 전 과목 A+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한 학기였지만, 이 경험은 “꾸준함은 결국 결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새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일이 많아도,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자기관리 수준을 넘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는 방식이자 제 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꾸준함만으로는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머그컵 디자인과 판매에 도전했지만,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모든 일을 잘하려 하기보다, 강점을 살리고 집중해야 성과를 만든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고, 저의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며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특기사항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저는 주변의 불편함을 발견하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를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의 이사를 거치며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했는데, 특히 세 번째 집에서는 구조 변경이 필요한 대공사를 직접 도면 수백 장을 그리며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자들 모두에게 “다른 공간 같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이끌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공간의 디자인을 넘어,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설계한 뒤, 실제 결과물로 구현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과, 퍼블리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불편을 발견하고, 정보 구조를 재정리하며, 픽셀 단위까지 치밀하게 구현하는 과정이 곧 제가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해내는 디자이너이자 퍼블리셔입니다.

## 직무경험

[노력에 대한 믿음]

저는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처음 웹디자인 업무를 맡았을 때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자신이 없었지만, 동료들에게 묻고 뒤에선 스스로 공부하며 맡은 역할을 해내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인 전공자들을 제치고 주요 디자인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담당 이사에게는 팀원 교육까지 제안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는 UI/UX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웹·앱 리뉴얼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수집하며, 수십 차례의 스케치를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 끝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임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며 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할 때 두려움보다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며, 노력 끝에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기업의 첫인상을 만드는 디자인과 퍼블리싱]

저는 웹, 앱이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성도 높은 디지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화면을 넘어, 사용자 경험 전체를 설계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 방향성에 깊이 공감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UI/UX 구조를 직접 고민하며 디자인과 퍼블리싱 전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완성도가 부족하다 느끼면 새벽에도 코드의 수정방향을 고민했고, 필요할 때는 새로운 기술과 툴을 스스로 학습해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단순히 화면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배우고 개선하며 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와 사용자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팀원들과의 협업 속에서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퍼블리싱, 사용자 흐름을 끊지 않는 UI 설계, 브랜드가치를 해치지 않는 디테일 유지를 강점으로, 귀사가 사용자에게 더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